# 일본근대시에 나타난 근대와 탈근대

## - 기타하라 하쿠슈 시를 중심으로

**안노 마사히데**
(상명대학교)

## Ⅰ. 들어가기 -일본에 있어서 근대란 무엇인가?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76-1916)는 「현대일본의 개화(現代日本の開化)」(1911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서양의 개화는 내발적"이며 "일본의 현대 개화는 외발적"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개화'라는 말은 '근대화'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현대 일본의 개화는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 개화"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인은 "신경 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능하면 신경 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내발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쇄국 배외(排外)의 공기 속에 2백여 년이나 마취되어 있다가 돌연 서양 문화의 자극으로 튕겨져 나갈 만큼 강렬한 영향을 받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일본의 개화는 그때부터 급격히 굴절되기 시작했다. 또한 굴절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 원식은 "한국과 일본 문학이 걸어 온 길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문학은 서구의 충격 앞에서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해 고민에 찬 암중모색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www.kci.go.kr

[1]라고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고민은 직접적으로는 일본 근대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 근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라는 시점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서양의 근대는 계몽주의 이념 아래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포치(布置)하는 식민주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열강의 개국과 통상 압력으로 인한 불평등한 조약 하에서 진행되었다. 서구열강의 강압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기는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커다란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서양과 일본의 격차를 메우고 일본을 근대 국가로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메이지 신정부가 당면한 최대 급무였다. 또한, 당시 일본 지식인의 대부분은 서구열강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정신적ㆍ내면적, 혹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피해자' 의식에 시종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일원인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했던 이른바 '탈아입구(脱亜入欧)'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를 침략하는 가해자의 측면, 다시 말해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2]

일본문학에 있어 근대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탈근대란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1885-1942) 의 시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근대의 식민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근대시는 서구 시의 번역과 창작을 모은 『신체시초(新体詩抄)』(1882년)에서 출발하는데, 하쿠슈는 구어자유시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에 있어서의 구어자유시는 소설의 언문일치체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근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하쿠슈는 시ㆍ단가에서부터 민요ㆍ동요 등의 가요에 이르기까지 일본 근대의 거의 모든 음운 장르에서

1) 최원식,『한국의 민족문학론(韓国の民族文学論-東アジアの連帯を求めて)』, 아오야기 유코(青柳優子)역、오차노 미쯔 서점, 1995, p.2.
2) 윤건차, 「'동아시아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2000.11. http://www.k2.dion.ne.jp/~koreanya/04colum1/colum1-frameset.htm.(검색일:2009.10.3)

www.kci.go.kr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에서 자신을 '국민 시인'이라고 칭했다. 특히 그의 가요 작품은 교육과 방송 미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기 구화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자신의 청춘을 연소시키면서 점차 동양적인 미의식 표현에 경도되어 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제국 일본을 고무하는 작품을 집필했다. 그 때문에 일본인인 본 발표자가 하쿠슈의 시를 다시 묻는 일은 곧 일본 근대의 모습을 자기 비판적으로 다시 묻는 일과 상통할 것이다.[3)]

한국에서는 하쿠슈에 대해 주요한이나 정지용 등과의 영향 관계가 비교문학적으로 논해지고 있으며 한국 근대시에 가장 영향을 준 시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4)]. 본고에서는 그러한 영향 관계 보다는 하쿠슈가 그린 근대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또한 탈근대적인 시적 세계의 구축 가능성을 논하고자 했다.

## II. 기타하라 하쿠슈 시에 나타난 근대 -식민지 주의의 양상

하쿠슈의 첫 번째 시집『사교의 문(邪宗門)』(1909년)은 우에다 빈(上田敏)의 서구 상징시의 이론 소개와 번역시집『해조음(海潮音)』(1905년)의 영향으로 탄생했다. 번역시는 주로 보들레르와 베르레느 등 프랑스 상징시로 서구 세기말 상징시에 집중되었다. 그 번역 시집 서장에는 "시인의 관상(観象)과 유사한 하나의 심정을 독자에게 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에게 시의 화자와 "유사한 심정을 환기하는" 언어를 시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상징시라는 해석은, 하쿠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등장하는 시인들에게 상징시의 작시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쿠슈는『사교의 문』의 서장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발견

3) 쓰보이 히데토(坪井秀人)는「표상으로서의 식민지」(『이와나이강좌5 근대일본의 문화사5(近代日本の文化史 編成されるナショナリズム 1920-30年代)』,이와나미소점, 2002)에서 하쿠슈의 텍스트에서 식민주의적 요소를 추출하는 치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 논의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4) 양동국,『한일근대시 접촉의 일단면-기타하라 하쿠슈와 주요한을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 2004.10, 사나다 히로코,『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역락, 2002 등

www.kci.go.kr

되는, “후각”, “예리한 신경”, “한숨”, “애수”, “손에 닿는 감촉” 등의 감각과 정서를 시의 언어를 빌어 암시하는 것이 상징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퇴폐한 붉은색을 그리워 한다” 라든가, “황랍(黃蠟)의 썩은 끊임없는 경련”에 대해 고집하는 기술에서, 1906년에 시작된 인간의 추악한 부분을 응시하는 일본 자연주의문학 경향과 서구 세기말 상징시의 데카당스로 경도되어 갔음을 읽을 수 있다.

하쿠슈에게 있어 근대 의식은 내적으로는 개성의 심미화이며,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은 시적 의장(意匠)의 새로움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5] 여기서 ‘시적 의장’이란 간바라 아리아케(蒲原有明)의 시에 보이는 영(靈)과 육(肉), 지(知)와 정(情), 이념과 현실 등 이원론적인 갈등으로 나타난 근대적 자아의 고민과 같이, 이성적인 것은 배제되고 오로지 감각과 관능에 대한 공명(共鳴)만으로 독자의 정서 세계로 파고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사교의 문』에는 일본의 규슈(九州) 지방 기독교 금제 시대(17-19세기 중반)의 고적을 여행했을 때에 꿈꾸었던 남만(南蛮) 취미[6]의 정경을 당시 사료의 어휘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 나는 바란다. 말세의 이단교 크리스탄[7] 제우스의 마법.
> 흑선의 카피탄을,[8] 붉은 털의 불가사의한 나라를,
> 색 빨간 유리구슬을, 향기 짙은 안쟈베이루,[9]
> 남만의 산토메[10] 비단을, 또한, 아라키,[11] 친타[12]의 술 들을.

---

5) 이토 신키치(伊藤信吉), 「근대시의 본질과 반법(近代詩の本質と方法)」, 『근대시감상(近代詩鑑賞)』, 가도가와소점, 1960, p.326.

6) 남만은 16세기 이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 걸친 지방 및 그들 지역을 경유해 온 포르투갈 등을 지칭하며, 그들이 도입한 문물을 의미한다. 남만 취미는 주로 16-17세기에 서양의 기독교 교도(남만인)의 도래로 초래한 것에 대한 기호(嗜好)이다. 그 외에 근세 쇄국기(17-19세기 중반)와 에도막부 말기 개국-문명화기(19세기 후반)이라는 세 가지 시대의 층위의 서양에 대한 복합적인 욕망을 전제로 해, 그 복합을 『사교의 문』이 발표된 당시의 지점에서 회고하는 복잡한 형태로 성립되었다.

7) 여기에서는 카톨릭 신자.

8) 선장.

9) anjebier. 네덜란드어. 강한 향기를 내는 카네이션의 일종.

www.kci.go.kr

눈동자 파란 도미니카 사람[13]은 기도문 외며 꿈에도 설파한다.
금지돼 있는 종문의 하느님을, 또한 더구나, 피에 젖은 크로스.[14]
겨자씨를 사과처럼 크게 보이게 하는 기교 부리는 기구,[15]

파라이스[16]의 하늘도 보이게끔 늘려 줄이는 이상스런 안경을.[17]

집은 더구나 돌 이어 만들고, 대리석 속의 하이얀 끓는 피[18]는
유리로 만든 항아리에 담겨져 밤이 되 오면 불 밝힌다 하니
그 아름다운 에레키[19]의 꿈은 비로우드의 향기와 섞이어져
진기스러운 달세계에 엿보인 새와 짐승들 비춘다고 들었다.

또 듣기로는, 화장품의 재료는 독을 품은 풀 꽃잎에서 짜내고
썩어버린 돌 기름으로[20] 그린다 하는 마리아의 동상이여,
또한, 라틴, 포르투갈 등등의 가로로 쓰는 파란 빛의 글자는
아름다운 듯, 그러나 슬픈 듯한 환력의 소리로 가득 찰지도.

그렇다 하면 우리에게 주어라, 현혹케 하는 파도레 존자,[21]
한 백년을 한 찰나로 줄이고, 피의 십자가 등지어 죽을지라도
서럽지 않다. 바라는 것은 극비, 그런 기이한 연분홍색 꿈,
젠스마로,[22] 오늘을 기도하니 몸도 영혼도 그을려 타오른다.

-「사교의 문 비곡(邪宗門秘曲)」전문(1908.8)

---

10) 인도 동쪽 해안 산토메 지방에서 건너온 비단.
11) arak. 네덜란드에서 온 자극적인 증류과실주(원산지는 아랍).
12) 적포도주.
13) 도미니카Dominica 파의 신부.
14) 십자가.
15) 현미경을 뜻함.
16) 포르투갈어, 파라다이스(천국).
17) 망원경.
18) 석유, 혹은 파라핀 paraffin을 의미함.
19) 전기, 여기에서는 환등.
20) 유화를 의미함.
21) 포르투갈어, padre 신부.
22) Jesus, 예수.

www.kci.go.kr

쓰보이 히데토(坪井秀人)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쿠슈의 남만 취미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전기와 같은 새로운 시각적 기술이 풍속으로서 도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진화한 문명의 표상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의 소산이 아닌, 불길한 힘을 기대하게 하는 '마법(魔法)' -여기에는 오히려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투사된 '야만스러운 자'라는 시선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금제 시대의 '사교(邪宗)'의 한 풍경을 서구 세기말 데카당스 기법으로 변질시켜, '말세의 사종'의 세계='여기 · 지금'의 풍경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우리'의 욕망이란 바로 근대 세기말의 동시대 모드로서의 퇴폐에 투신하는 것이다.[23]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근대의 타자(기독교 교도)와의 만남의 풍경을 '야만한 자'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는 서양문화로의 동기화를 실현했다고 자부하는 근대의 입장에서 '야만한 자'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즉, 하쿠슈에게 있어 근대란 동시대 서구 세기말 사조의 시선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대 안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타자를 '야만한 자'로 지배 하에 편입시키려는 식민지 주의적 시선을 내재하고 있다.

한층 더 흥미로운 것은, 작품은 기독교 교도 탄압 시대를 재제로 삼으면서, 그들이 도입한 서양 문물(풍속)로 채색하는 한편, 탄압의 역사를 되묻는 시점을 결여한 채 '피의 십자가'=순교로 바꿔 말함으로써 시의 화자는 선구자로서 순교의 명예로움에 동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양적 풍물의 묘사는 다른 시에서도 카페라든가 가스등, 공원 등을 새로운 소재로 도입하여 새로운 도쿄의 정경으로 그려내는 것과 상통하는데, 어쨌든 기독교도 탄압을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은 제국 일본의 침략 행위를 무마하고, 조선 근대의 모던을 풍속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무의식 속에서 식민지 근대의 폭력적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것은 또, 1930년대 일본에서 사회주의 탄압을 거쳐 '근대의 초극'이라는 논의가 일었던 것을 상기하게 한다.[24] 여기서 말하는

23) 注3) p.282.

24)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프레드릭 제임슨과의 포스트모던에 관한 대담 안에서 이 시기의 '근대의 초극'에 대해 "마르크 스주의가 탄압 받은 이후의 현상"이라고 전제한 후에, "제대로 된 '근대'가 없던 시점에서 항상 일본 지식인들에게 논의되어 왔던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탐구(探求)』, 제삼문명사,

www.kci.go.kr

‘초극’이란 타자의 강제적인 배제의 논리 하에 행해진 민족주의적이고 국구주의적인 성격이 현저한 것이었다. 그것이 식민주의를 내재하고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시아를 향해 식민화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이라는 슬로건에 도취되면서 서구를 대신한 제국주의자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사교의 문』의 시 「꽃 그림자(華のかげ)」에는 남만(서양)이 아닌 서양의 식민지로 화한 남만(인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앞서의 남만 취미 문제가 더욱 농밀하게 표현되고 있다.

> 이곳을 지나 거리로 가는 자,
> 바라문(婆羅門)의 고행의 승려, 혹은 또
> 살아있는 가축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 다라(陀羅, 인도 최하층 종족)의 무딘 칼의 색,
> 마침 보이는 것은 (제물로 바쳐질) 불 띠를 두른 노예들
> 석유통을 집어 던지고 날카롭게 울부짖지만,
> 이 가뭄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이거야 말로,
> 굶주림에 타락한 천축(天竺) 말기의 고뇌.
>
> -「꽃 그림자(華のかげ)」일부

위의 시 안에는 인도의 귀족과 승려, 최하위 계층의 종족, 노예들이 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가혹한 풍토와 병의 이미지, 그리고 ‘토인’과 ‘노예’의 표상을 통해, 후발성(야만)으로 인한 피지배 / 피 식민지화는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화자는 인도의 지옥도를 내려다보는데, 그 시선은 연민과 동정을 수반하고 있지만 풍자와 반항의 계기로 삼고 있지는 않다. 즉, 서양에서 온 이방인을 응시하는 「사교의 문 비곡」이라든가, 인도의 지옥도를 응시하는 「꽃 그림자」에서도 역시 타자에 대한 시선이 ‘남만’=야만이라는 틀 안에서 균질화되고 있다.[25] 「사교의 문 비곡」의 경우, 마지막 문구인 “백년을 찰나로 응축해”라는 표현에서 압축된 시공(時空)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시간 개념으로

---

1991, p.469)

25) 注3) pp.283-284 참조.

www.kci.go.kr

생각해 보면,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에 나타나는 '미래 지향'의 진보적인 시간을 순간이지만 단절하고[26] '직접적 시간'(근대)에 대한 '시공의 압축'(탈근대)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의 각주 5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품의 풍경은, "금제의 종문신(宗門神)"이라든가 "피로 물들인 성책(聖磔)"으로 상징되는 기독교 금제시대(근세 쇄국기 17-19세기 중반)를 바탕으로 해, 망원경과 현미경 등 16-17세기 초반 기독교 교도가 도래하면서 도입한 문물이, '흑선(黒船)' 등 에도막부 막말 개국-문명개화기(19세기 말)에 나타난 것과 혼재하는 형태로 형상화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의 압축'은 일종의 탈근대의 방법을 관통하고 있다.[27] 그런데 이 압축된 시공의 양상은 타자를 풍속으로 간주하여 흡수하는 방식의 저급한 일본의 '폐역(閉域)'(근대)이었다. 그 근대성이 자아해방의 힘이라고 하면, 자기를 해방하는 다른 한편에서 타자를 억압하고,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측면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순진했던 하쿠슈는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즉, 일본의 시적 근대의 창출을 위해 서구 근대 사조를 도입하고, 구어자유시의 확립에 기여한 점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 Ⅲ. 하쿠슈의 시적 실험 -동양으로의 길

하쿠슈의 서구 세기말 일본에 있어서의 표상은 『사교의 문』 이후, 두 번째 시집인 『추억(思ひ出)』, 세 번째 시집 『도쿄 경물시 및 그 외(東京景物詩及

---

26) 이서다 고우이치(磯田光一), 「로일 전쟁후의 미궁원망(日露戦争後の迷宮願望)」, 『요리이카(ユリイカ)』제5권제15호、세이도사, 1973, p.81 참조.

27) 근대와 탈근대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의 진리/ 상대주의, 인간중심주의/ 문화의 개별성, 균일성/ 이종혼재성(異種混在性), 유럽중심주의/ 글로벌리즘, 보편적 법(法)/ 해체, 사회구조의 중시/ 개인의 쾌락 우선, 산업주의/ 포스트산업주의, 부권성(父権性)/ 성의 유동성, 직접적 시간/ 시공의 압축, 현실/ 초현실주의, 폐역성(閉域性)/ 미폐역화(未閉域化) 등을 들 수 있다. (Jeff Lewis, *Cultual Studies, The Basic*(London: Sage,2002), p.17.

www.kci.go.kr

其他)』를 거쳐 크게 변화한다.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을 계기로 도쿄를 피해 간 막다른 곳에서 불교와 일본 고전 가요를 접하고, 동양적 사상에 경도되어 간다. 바로 그 무렵, 선종 승려이며 한학자였던 고다 렌타로(公田連太郎)와의 교류를 통해 풍부한 한문 서적과 불전의 지식을 흡수한다. 그리고 자기를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는 동양적인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 이 안에서 나타난 세계에서 발견되는 "일본적인 애매함으로 펼쳐지는 용서의 세계, 혹은 무위(無為) 안에 편재하는 부처의 발견 등은 자아의 신장과는 반대의, 비력(非力)한 인간의 자각"[28]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구의 세기말 데카당스(진화 끝의 퇴화)의 세계로부터 동양의 정신주의로 이행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흥미가 단순한 반동인지, 아니면 내셔널리즘과 통하고 있는지, 그도 아니면 동양적인 사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지는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신생(新生)'의 시는 네 번째 시집『진주초 인도경사 제일편(真珠抄　印度更紗第一編)』(1914) 과 다섯 번째 시집『백금 평이 인도경사 제이편(白金之独楽　印度更紗第二編)』(同)에 수록되어 있다. 네 번째 시집인『진주초』의 모두의 부분에는 "인도의 경사(更紗)의 말"의 제목으로 "마음껏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다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태어난 대로의 모습으로, 빛나는 생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흐드러지게 피어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라, 나의 노래는 또, 인도 사라사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수수하고 윤기가 나며" 또한 자욱하여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하쿠슈는 자신의 시를 '인도 사라사'집에 비유함으로서 새로운 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의『사교의 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적 경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덧붙이는 말' 에서는 "내 마음은 구슬과 같아"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섬뜩한 비운(悲韻)이 감돈다. 애환을 멈출 길 없고" 다만 상주영원(常住永遠)한 생명을 쫓을 뿐이다. 진실은 나의 소념(所念) " 내 진주는 바다의 비보(秘宝), 내 소리에 슬집인숨어 눈물을 흘려라."라고 표현함으로서 '마음'의 '진실'을 '진주' 로 비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빛나는 생명의 흐름 에 몸을

28) 바바 아기코(馬場あき子),「사상으로서의 운률(この「ホッホ」的ならざる葛藤思想としての韻律)」,『요리이카』제5권제15호, 1973.12, p.175.

www.kci.go.kr

맡겨라"든가 "상주(常住)의 생명을 쫓을 뿐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거대한 생명으로 연결될 것을 희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쿠슈는 전원(田園), 즉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상처 받은 생명의 '소생=신생'을 기원하고 있다.

『진주초』에서는 일행시를 '단창(短唱)이라고 명명하고, 하쿠슈는 하이쿠나 단가와는 다른 일본 고래로부터의 '가요의 흐름'에서 나온 자유율의 단시='신체(新体)'를 실험하고 있다.

촉촉하여라 진주옥,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나의 생명

위의 모두(冒頭)의 시를 비롯해, 「봄날 예찬(永日礼賛)」이라는 장 에서는, "어느 바다 근처 경사진 초원에 누워 뒹군다. 가득 비춰지는 햇살에 몸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진실한 단 한 명의 인간도 물질도 없는 감각의 극한에서 눈물만이 흐른다"라고 덧붙이는 말을 통해 단시를 배치해 간다.

방울져 떨어지는 것은 태양의 방울 조용히 머금는 눈의 눈물

인간이라면 견디기 힘들다, 진실로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다

산이 빛난다 나무가 빛난다 풀이 빛난다 땅이 빛난다

위의 시는 각각 「봄날 예찬」이라는 제목의 장으로 각각 3편이 독립된 일행시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冒頭)의 시 역시 자연과 인간이 유대 관계를 이루어 생명선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이 공감하는 모습은, 세기말적 데카당스를 상징하는 섬뜩한 "해질녘 빨간 하늘"(「WHISKY」, 『사교의 문』), 우울하고 나른한 "만춘"의 "황혼", (「실내 정원(室内庭園)」, 『사교의 문』), "시들고 병든 볏짚"(「흐린 날(曇日)」, 『사교의 문』), "시들어 버린 침엽수"(「변덕스러운 비(雨のきまぐれ)」, 『도쿄 경물시 그 외』) 등에서의 표현과 같이 매우 많은데, 생기를 잃고 썩어 가는 퇴폐적인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진주초』 이후, 하쿠슈는 종종 "있는 그대로"의 것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www.kci.go.kr

는 타자(서양)를 향해 급격히 진행해 가는 가운데 타자화(서양화)된 자기표현에 가로막혀 버린 동양 시인의 솔직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一
장미 나무에
장미꽃이 핀다.
아무 이상할 것이 없지만.

二
장미꽃.
아무 이상할 것이 없지만.
햇살이 뜨겁게 비추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빛이 떨어진다.

-「장미2곡」(『백금 팽이』)

장미 나무에 장미꽃이 피듯이 서구 근대에 그것은 개화해 간다. 일본도 서구 근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본다운 꽃을 피우면 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하쿠슈의 일본 회귀가 시작되었다.

이후,「예술의 원광(芸術の円光)」(『시와 음악(詩と音楽)』1922년 9월, 이후『수묵집(水墨集)』(1923)의「서문을 대신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친애하는 그러한 유로(流露)를 표현의 지상으로 삼자면, 시인은 항상 자기 자신의 호흡, 심언(心言), 내율(内律)의 여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시종 실상(実相)의 신(神)과 접촉하면서,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항상 주객(主客)이 함께하는 원융경(圓融境)으로 깊이 호흡해야 한다. 상징의 비경(秘境)은 이곳에서 생겨나며, 진정한 자유형(自由形)은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수묵집』의 발문 안에도 "있는 그대로 있게 해 주는 것, 이 감사함을 나는 예배(礼拝)한다. 자연에의 순종, 실상관입(実相観入), 이 소념은 몇 번

www.kci.go.kr

이고 내가 말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구 근대의 문맥으로 이야기되어 온 '상징'이 동양의 문맥에서 기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묵집』 안의 "무위자연(無為自然)"이라는 관점이라든가, 불교어의 "무작(無作)"[29]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하쿠슈는 1920년대 이후, 서구 사조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동양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창작으로 이행해 갔던 것이다.

> 눈을 잘 뜨고 제대로
> 오늘 처음으로 보았다.
> 못생긴 이 남자
> 빛나고 계신 이 부처
>
> —「범부 개안(凡夫開眼)」 (『백금 팽이』)

여기서는 "못생긴 이 남자"='야만스러운 자'가 바로 "부처"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왔던 서구 근대의 발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그렇다면 금귤(金柑) 나무도 부처다 고마운 것이다 금귤의 열매가 태양을 듬뿍 받아 흘러넘치는 듯하다

> 수목은 바야흐로 천의 손을 가진 관음보살이다 서쪽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을의 황혼

이처럼 '못생긴 남자' 안에서 '부처'를 보는 시각이나 자연 속에 편재하는 부처의 발견은, 서양의 일신교적인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지극히 동양적인 인간관, 자연관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양적인 발상으로부터 동양적인 발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양

29) 무작이란 인위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 자연 그대로. 무위. (『大辞林』) 또는, "무작의 삼신(三身)"이라는 말에 대해, 最澄은 "有位의 報仏은 꿈속의 権果, 無作의の三身은 覚前의 実仏"(『守護国界章巻下之中』)이며, 이는 부처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日蓮은 法華経所説의 久遠実成의 釈尊에 대해 "久遠이란, 움직이거나 만드는 것이 아닌, 원래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모치주기불교대사전(望月仏教大辞典)』,세계성전간행협회, 1974, p.4830)

www.kci.go.kr

적, 혹은 불교적인 표상에서 탈근대의 가능성을 간파할 수 없을까?

## Ⅳ. 기타하라 하쿠슈 시에 나타난 탈근대
### - '문화의 상대성'과 '글로벌리즘'

하쿠슈는 1918년『도쿄 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에서 모집한 '국시(国詩)'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는「'국시' 모집에 대한 감상」이라는 제목의 글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동양 특히 일본의 예술은 주로 인간 및 대자연의 생명을 직감하는 것에서 생겨난다. 이 직감력, 예민함은 모두 동양인의 특성으로 오로지 연역적인 서구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때문에 상징적 예술의 진수는 고래 동양에서만 독점하게 되었다. 거기다 원시 일본인은 영적(霊的)이며 실로 독창적이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서구의 예술만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담론이 '국시'라는 틀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 "원시 일본인"은 "독창적"인 존재로서 발견되고 있다. 십년 전, 서구 세기말 데카다니즘의 동시대적 표현으로 독창성을 겨루었던 하쿠슈가,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원시인'을 이상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예술의 원광」(1922년) 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 개개의 자연상(自然相), 혹은 개개의 인간 감정의 상징으로서 얼마나 말이란 것이 감각적이며, 정신적이며, 본질적인지, 이를 생각하면 실로 놀랍다. 적어도 처음 말이 만들어졌던 그 때, 원시인의 감정, 감각이 얼마나 직접성을 띠었으며, 또 얼마나 진지하고 소박했는지.

이 '원시인'의 동시대적 존재로서 발견된 것이 홋카이도와 가라후토의 여행에서  해후한 아이누 족 이었다. 아이누 족은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변경으

www.kci.go.kr

로 쫓겨나 일본인과의 균질화를 강요당했던 '내부 식민지'의 피해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쿠슈는 그 아이누 사람들의 생활을 접하고, "이곳을 통해 우리의 숨결이 소생한다"(「시오쿠비미사키(汐首岬)」, 『근대 풍경(近代風景)』3권 6호, 1928년)라고 언급하거나, "그, 아이누, 눈썹이 빛난다/ 백발이 가슴에 드리운다"[30](「늙은 아이누의 노래(老いしアイヌの歌)」, 『닛코(日光)』3권 2호, 1926)라는 식의 생동감 있는 표현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기 안에는 "장엄한 생김새와 위엄 있는 풍채를 가진 자"(『후렙·토립(フレップ·トリップ)』,아르스 1928년)라고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원시 기독교 시대에서 찾았던 '톨스토이'[31](同)로 오인하고 있다. 즉, 일종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아이누 흡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도 『사교의 문』의 경우와 같이 일본 근대의 아이누 억압의 역사를 간과한 채 "사라져 가는 산송장"(「늙은 아이누의 노래」, 앞의 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는 '자신=일본 근대'의 암부에 메스를 가하고 있지 않다. 즉, 왜 "사라져 가는"가를 되묻는 인식이 없다. 또한, 타자(다민족) 안에서 자기(자민족)의 과거의 한 시기를 발견하는 시선 역시 식민주의적이다. 게다가 하쿠슈와 같은 내지의 시인들이 문자가 없는 아이누의 말을 시나 여행기 안에서 평준화된 음률과 문자, 즉, 일본어나 로마자의 문자로 옮겨놓은 '소리'에 계속 반응하면서도, 폭력적으로 지워 없애거나, 자신들의 '일본어=국어'의 코드에 그 화성감(和声感)을 돋보이도록 흡수해 갔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32] 이 안에도 역시, 근대에 잠복하는 폭력성이나 식민주의 측면이 무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점은 역시 빠져 있다.

---

30) 그 외에도 하쿠슈는 아이누를 표상하는 시로 "사라져 가는 살아있는 시체/ 빛나는 거기다 백색 시체"와 같이 아이누를 '백색'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청순한 것, 희미한 것, 확실하게 한정하기 어려운 것 등을 상징하는 말로 그 속성을 갖춘 물상(物象)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자주 사용되었다.

31) 일본에서는 톨스토이와 관련해 『톨스토이 연구』 (1916-18년) 라는 잡지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의 사상은 동시대 문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2) 注 3) p.298 참조.

www.kci.go.kr

『사교의 문』과의 차이라고 하면, 시의 화자의 위치에 선 근대인과는 반대측의 존재로서 그 미질(美質)을 파악하려고 한 점이다.『사교의 문』의 기독교 교도라든가 인도인과 같은 타자를 '야만스러운 자'로 파악하는 시선이 아닌, 오히려 아이누를 고유의 문화를 갖는 자부심 강한 사람으로 발견해 내고, 자연과 일체가 되는 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쿠슈가 홋카이도와 가라후토를 여행한 것은 관동대지진(1923년 9월)이 발발한지 2년 후 쯤으로,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시풍경이 격변해 가는 시기라는 점에_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지진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자연 풍경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도시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변화해 갔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아이누 사람들의 자연과 일체화된 '원시 생활'이 이상향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시 안에 표현된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깎는 아이누의 모습에서, 인도 고래의 방법인 차루카로 실을 뽑으며 영국의 근대 식민주의와 투쟁했던 비 폭력자 간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국 일본의 '국민 시인'임을 자처했던 하쿠슈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근대의 권력을 비판하는 시를 쓴 가네코 미쓰하루(金子光晴, 1895-1975)도 동남아시아를 유랑할 때(1929-1932), 타자를 문화의 상대적으로 파악해 묘사하고 있다.

> 문명이 없는 쓸쓸한 밝음이
> 문명의 한 표류물(漂流物), 나를 응시한다.
> 후추와 고무의
> 플랜터(planter,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식재용 용기) 등을 바라 본 것처럼.
> -「니파 야자의 노래(ニッパ椰子の唄)」제7연,『문학자(文学者)』1939

위의 인용문은 동남아시아의 자연을 상징하는 '니파 야자'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명이 없는", "밝음"은 앞서 언급한 아이누의 표상처럼 '야만스러운 자'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서양 근대의 식민주의에 착취되는 아시아인도, 유랑자이지만 문명인인 '나'도 상대화된다. 그런데 미쓰하루는 아시아인의 자연에 순종하는 생활이 식민주의의 폭력으로 인해 파괴되고 철저하게

www.kci.go.kr

이용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

미쓰하루는 전시 하의 언론 탄압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 쓰고 제국주의를 비유한 시 「상어(鮫)」(1930년)를 발표하여 서구 근대의 식민주의를 비판한다. 예컨대, "우리는 기독교도와 향료를 찾아 이곳에 왔다./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상륙시의 이 말은/ 우리는 노예와 약탈품을 찾아 이곳에 왔다."라고 풍자하고 있으며, "녀석들은 일제히 말한다./ 우정이다. 평화다. 사회애(社会愛)다./ 녀석들은 그리고 종진(縦陣)을 형성한다. 그것은 법률이다. 여론이다. 인간 가치다./ 똥(糞), 또한, 그래서,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침략자의 기만을 간파한다. 그의 시는 또 전체주의, 파시즘, 전쟁, 민중의 참상, 사상 탄압, 천황제 기구를 지탱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한다.

미쓰하루가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 일본 특유의 국가·정치 기구를 비판하거나, 윤택한 자연·풍토와 오랜 봉건적인 제도와 서로 얽힌 생활로 인해 폐쇄되고 일그러진 일본인의 심성을 비판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바로 그 속에 아시아의 영원(永遠)[33], 즉 정치나 인습과 같은 인위(人為)를 초래하고 있는, 부정하고 부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부정적인 아시아의 영원이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34] 미쓰하루로 인해 근대시는 간신히 일본 근대의 식민주의에 대해 자각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지평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쿠슈의 아이누나 미쓰하루의 「니파 야자의 노래」는 '문화의 상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종의 포스트모던 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시도 '달'에서 본 세계의 시뮬레이션이며, '지구인'이라고 하는 글로벌리즘에 근접하고 있는 점에서 탈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3) "동양의 영원이란 단순히 인간화되지 않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미(일본)이 밀어붙였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역사적 현실이다" (코우라 루미꼬(高良留美子),「무죄성의 신화(無罪性の神話)」,『문학과 무한한 것(文学と無限なもの)』,지쿠마서점,1972)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34) 사와 마사히로(沢正宏), 『시가 성립되는 곳-일본의 근대시, 현대시에의 접근(詩の成り立つところ-日本の近代詩、現代詩への接近)』, 한림서점, 2001, p.207-210 참조.

www.kci.go.kr

달에서 본 지구는, 원(圓)일까,
보라색 빛인,
깊은 냄새의.
나는 서있었다, 바다의 물가에.
지구만은 밤하늘에
어린, 막 태어난.
크게, 떠 있던, 지구는.
그 어깨에 공기가 타올랐다.
구름과 이별했다.
파도소리를, 나는, 초목과
불을 뿜는 산의 지동(地動)을 들었다.
사람의 호흡을.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가,
보라색의 그 빛을,
나의 동쪽에서.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 지구인이
오래 전부터 신을 찾고 있었음을,
또 만들었음을.
-「달에서 본 지구(月から見た地球)」(초출『근대 풍경』1권 1호, 1926)

## Ⅳ. 나오면서

이상으로 일본 근대시에 있어서의 근대와 탈근대의 제상(諸相)에 대해서 기타하라 하쿠슈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쿠슈의 시에서는 주로『사교의 문』과 초기 창작 작품에서 는 근대라는 점이 무의식적인 식민주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중기의『진주초』이후, 동양적인 사상을 시 속에 담으려고 하고부터는 근대적인 면이 배경에서 물러나고,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일체화), 있는 그대로의 태도의 표명 등의 언어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시로서 형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필자는 이러한 과도한 근대화에 앞이 막혀버린 시인의 탈 근대적 실험이라고 포착하고자 했다.

www.kci.go.kr

후기의 시 중에서도 '문화의 상대성'과 '글로벌리즘'이라는 탈근대의 지표로 통하는 시가 나타나 있는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하쿠슈의 한계는 근대=식민지주의에 대한 가네코 미쓰하루처럼 권력에 대치하고 권력을 비판하기까지의 반골정신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20년대는 일본을 포함하여 모더니즘 세계의 동시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한 시대의 시작은 이미 그 안에서 종언의 요소를 잉태하기 시작한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역사 연구』제 1 권(1934)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산업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이라는 두 가지 힘이 서로 모순하고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역사적인 개념으로 일찍이 제기한 바 있다. 구미나 일본에 의한 식민화, 혹은 반(反)식민화된 지역에서 민족주의나 내셔널리즘은 반(反)제국주의, 반(反)식민주의의 연대를 형성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산업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일국(一国) 내에서 자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35] 즉, 구미와 일본의 근대가 식민주의적이고 타자의 희생 위에 구축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근대란 자국 중심적인 자아의 해방에 지나지 않으며, 타자를 억압하면서 지배와 종속 관계에 두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지 주의적 시스템이 하쿠슈의 시속에도 내재 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하쿠슈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기의 작품군이 가장 평가되었지만, 가장 평가되지 않았던 동양적인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은 중기의 작품군이 가장 건전하고 전통에 뿌리내린 독창적인 양식을 가졌다는 평가의 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하라 하쿠슈 텍스트는 모두 이와나미서점판『하쿠슈전집』(1984-1988)에서 인용했다.

35) 코모리 요이치(小森陽一),「모던과 포스트모던(モダンとポストモダン)」,『이와나미 강좌 문학 12 모던과 포스트모던(岩波講座 文学12 モダンとポストモダン)』, 이와나미소, 2003, p.5.

www.kci.go.kr

## ❖ 참 고 문 헌

阿毛久芳,「海豹と雲」『国文学　解釈と鑑賞』, 第69巻5号, 2004.5.
礒田光一,「日露戦争後の迷宮願望」『ユリイカ』第五巻第15号, 青土社, 1973.12.
柄谷行人,『探求』, 第三文明社, 1991.
河村政敏,「注釈」,『北原白秋集』, 角川書店, 1970.
_____,「北原白秋論」『国文学　解釈と鑑賞』第69巻5号, 2004.5.
小森陽一,「モダンとポストモダン」,『岩波講座　文学12 モダンとポストモダン』, 岩波書店, 2003.
沢正宏,『詩の成り立つところ-日本の近代詩、現代詩への接近』, 翰林書房, 2001.
崔元植,『韓国の民族文学論-東アジアの連帯を求めて』, 青柳優子訳, お茶の水書房, 1995.
坪井秀人,「表象としての植民地」,『岩波講座5 近代日本の文化史 編成されるナショナリズム 1920―30年代１』, 岩波書店, 2002.
韓竜雲,『ニムの沈黙』安宇植訳, 講談社, 1999.
馬場あき子,「この「ホッホ」的ならざる葛藤 思想としての韻律」,『ユリイカ』, 第5巻第15号, 青土社, 1973.12.
尹健次,「「東アジア認識」という問題意識」, 2000.11.
(http://www.k2.dion.ne.jp/~koreanya/04colum1/colum1-frameset.htm)
_____,「近代性、植民地性、脱植民地主義に関するメモ」2003.3.24.
(http://www.k2.dion.ne.jp/~koreanya/04colum1/colum1-frameset.htm)
梁東国訳,『키타하라 하쿠슈 시집』, 민음사, 1998.
拙稿,「北原白秋『海豹と雲』における「古代」へのアプローチ」,『日本学報』第65号, 2005.11.
_____,「北原白秋『真珠抄』論」,『日語日文学研究』第63号, 2007.11.
_____,「北原白秋『白金之独楽』論」,『日本研究』第23号, 檀国大学校日本研究所, 2008.1.

www.kci.go.kr

## ❖ABSTRACT

#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f modern Japanese poetry -Mainly on poetry of Hakusyu Kitahara

Masahide Anno

This thesis reviewed about modernity and post-modernity, which was appeared in modern Japanese poem, centering on poem of Hakushu Kitahara, who is called as ‘people's poet’ one time among modern poets in Japan. Hakushu had affected big impacts in establishment of spoken language free poem in early period of Japanese modern time and had played a pivotal role in almost all phoneme genres of modern time of Japan ranging up to folk song, children's song, popular song including poem and short poem. In particular, his works of popular songs are loved by people until now through education and broadcasting media. He was a poet who was gradually inclined to expression of oriental aestheticism among wide spread of westernization in early time of Japanese modern period by burning his youth. In Korea, with regard to Hakushu, it is being discussed in comparison literature of relationship impacts with Yo-Han Joo or Ji-Yong Chung and is evaluated as a poet who had provided biggest impacts on Korean modern poems. In this thesis, I have tried to analyze modernity Hakushu had depicted and to discuss about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poetic world of post-moderni쇼 instead of such relationship of impacts.

As the result of analyzing poem collection in early time of Hakushu, it was found out that colonial aspects were included and I have focused on that. In other words, Poetic speakers stood at position looking down ‘primitive people’ from modern position who insisted realization of synchronization with western culture. Modernity to Hakushu was acquisition of glance of embellishment of the end of western century in concurrent time and it includes colonial viewpoint to bind others as ‘primitive people’ within oneself unconsciously. The world found out in such poems, it coincides with the facts that it conceals aspects of absence of others which suppress others and do not regard others as beings with personality while liberating oneself when we regard modernism as strength of self liberation.

After middle time of poems of Hakushu, modern aspects disappeared to the

www.kci.go.kr

background as he included oriental ideology in his poem and as he started to show obedience to and harmony (Identification) with nature, he began to show traditional original attitude as a Japanese and expression of aestheticism in his words and explanation. Such world of poem is supported by extremely oriental viewpoint about people and nature which is totally opposite to viewpoint of world of the west believing in one GOD. Like this, there was transformation of paradigm from western way off thinking to oriental way of thinking. We may find out possibility of post-moderni쇼 in his middle period of Hakushu or in oriental or buddhist symbolism.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this as an experiment of getting post-modernity by a poet who felt blocking through excessive modernization.

In collection of poems in late part of Hakushu, he symbolized Ainu tribe people, who are indigenous people of Hokkaido, as "primitive" with background of rapid urbanization after a great earthquake of Guangdong. (1923) In this aspect, we can point out the nature of post-modernity which can be ‘relativity of culture.’ However, even in here, speaker of poems did not plunge a scalpel into cancer part that ‘self=modern time of Japan.’ That is, there is no consciousness asking a question, “why Ainu tribe is disappearing?” In addition, glance of discovering one period of oneself (Own race) within others (Other race) is also colonialistic glance. On the other hand, in his poem Hakushu wrote from a viewpoint of the earth seen from the moon, it attracts attention as an element of‘globalism,’which is an index of post-modernity, appears.

It becomes clear that modernity of the west and Japan was established based on colonialistic and sacrifices of others. In other words, modern period was only a liberation of self centered on one's own country and it was reveled that it was a system of ruling and subordination while suppressing others. Through examination of this thesis, it was possible to prove that colonial system, which was not discussed in researches until now, is also inherent inside of poems of Hakushu. In addition, looking from this viewpoint, in studies of Hakushu in Japan, until now, his works in early period were evaluated as the best but it may be possible to suggest an axle of evaluation that group of his works in middle period had the most unique forms rooted in tradition with impacts of oriental traditional ideology which was not evaluated the least.

www.kci.go.kr

Key Words
일본근대시, 기타하라 하쿠슈, 근대, 탈근대, 신민지주의
Modern Japanese poetry, Hakushu Kitahara, Modernity, Post-modernity, Colonialism

논문접수일: 2009. 11. 14.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

www.kci.go.kr